

고구려 고분벽화와 남북교류협력*

고 광 의**

- I. 머리말
- II. 남북의 역사문화 교류협력 합의 과정
- III. 고구려 고분벽화와 남북교류협력 사례
 - 1. 1990년대, 간접 접촉
 - 2. 2000년대, 직접 교류
- IV. 고구려 고분벽화 남북교류협력의 성과와 의의
- V. 맺음말

I. 머리말

남한과 북한은 분단 이후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루고 냉전 체제 속에서 이념의 대립과 군사적 충돌이 격화된 1960년대까지는 양측의 교류협력은 전무한 상태였다.

1970년대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면서 변화의 기미를 보인 남북 관계는 1980년대 이산가족상봉이 시작되었고 1990년대에는 소떼 방북 등을 계기로 남측 사람들이 금강산을 관광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평양을 방문하여 '6.15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사회, 문화,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에서 남북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 졌다. 그리고 2018년에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두 정상이 함께 분단의 상징인 도보다

* 본 논문은 2019년 6월 8일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에서 개최된 '2019년 미술사학대회: 통일시대의 미술과 미술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원

리를 다정하게 산책하는 광경이 펼쳐지기도 하였다.

그동안 남북 간에는 주로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졌으며, 통일부에 집계한 연도별 협력사업 현황을 보면 1991년 이래 2017년까지 모두 642건이 승인되었다.¹ 남북교류협력에서 ‘문화’와 ‘역사’관련 사항은 사회문화 분야로 통칭하여 분류하는데 2017년까지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남북 간 사회문화 사업은 총 159건이다.

남북 사회문화 교류는 1991년 4월 일본에서 열린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6월 포르투갈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단일팀 구성 및 참가 신청이 허가된 이래 1997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에 47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08년에는 3건으로 하락하여 이후 간헐적으로 이어가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최근까지 남북교류협력 사회문화 분야에서 역사, 문화 관련하여 양측이 합의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남북 간 문화유산의 교류² 특히 고구려 고분벽화와 관련된 사례들을 정리하여 그 성과와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아울러 세계문화유산이자 남북 공동의 역사문화유산인 고구려 고분벽화의 연구와 보호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언하려고 한다.

II. 남북의 역사문화 교류협력 합의 과정

남북이 교류협력에 관한 공식적인 대화를 시작한 것은 1972년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발표된 남북공동성명으로 부터이다. 이 ‘7.4남북공동성명’은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 원칙을 제시함과 동시에 군사적 긴장 완화와 다방면적인 교류협력의 실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참여한 대치 상태에서 정치적 대화 통로와 한반도에서 평화 정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남북 간 최초의 합의로서 남북교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1988년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1988~1993년)가 들어서고 남북 간 교류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7월 7일에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이 발표되고 그 이듬해인 1989년 3월에는 대통령령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발

¹ “월간 남북교류동향 2017년 7월”, 《통일북스》 통일부(https://www.unikorea.go.kr/books/monthly/interchange/?boardId=bbs_000000000000044&mode=view&cntId=46539&category=&pageIdx=)

² 남북문화유산 교류 전반에 대한 정리는 『통일시대를 위한 민족문화자산 남북협력』 민족문화자산 남북공동보존 학술심포지엄 자료집(통일부·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2012)과 국립문화재연구소, 『남북문화유산 교류사』(국립문화재연구소, 2018) 등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족되었다. 그리고 1990년 8월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약칭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이 공포됨으로서 국가보안법에 의해 규제되던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법적 보장을 받게 되었다.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약칭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북 교류와 협력 부분은 자원의 공동 개발과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경제교류와 협력, 교육, 문화와 예술, 출판과 신문, 라디오, TV 분야의 교류와 협력, 민족 구성원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 이산가족의 서신 왕래와 방문, 교통망의 연결 등을 규정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으로 남북은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민족 공동 발전과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역사문화 방면에서도 실질적인 교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국민의정부(1998~2003년)는 대북 포용 정책인 ‘햇볕정책’을 표방하고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화해와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2000년 6월에는 남한의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6.15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등 남북의 화해 분위기가 급속도로 조성되었다. 공동선언은 모두 5개 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제4항에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실무회담을 통한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남북장관급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구성 등이 이루어졌으며,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을 위한 복원공사가 착수되고 개성공단특구와 금강산특구가 개방되었다. 6.15공동선언에서 남북의 교류협력분야에 ‘문화’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고구려 고분벽화 등이 좋은 사업 소재로 부각되었다.

국민의정부 대북 정책을 계승한 참여정부(2003~2008년)는 2005년 제17차, 2006년 제18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남과 북은 개성지구 역사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및 보존·관리 사업에 협력하기로 하고 문화유적 보존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제6조에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하여 ‘역사’를 독립된 분야로 분류하였다. 이어 10.4선언의 이행을 위해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

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야별 협력 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역사문화 관련하여 고구려·고려 등 역사유적 발굴조사 및 보존을 위한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협력하기로 합의문에 명시함으로써 남북 관계부처에서 고구려 고분벽화 등에 대한 발굴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³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협력 사업은 정치적 현실을 크게 벗어날 수 없었다. 이명박정부(2008~2013년)에서는 금강산 관광객의 총격 피살 사건 등으로 남북의 관광 사업이 중단되었고, 박근혜정부(2013~2017년)는 북핵문제가 불거짐으로서 개성공단의 폐쇄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전면 차단되고 말았다.

2017년 정권 교체로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북핵 사태의 엄중한 현실 속에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을 천명하는 한편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 및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역사문화 관련하여 2019년 3월 문화재청은 민족의 공동유산인 북한 소재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한 남북 간 협력을 확대하고 남북 교류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임시조직(Task Force)인 '남북문화재교류사업단'을 신설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⁴

Ⅲ. 고구려 고분벽화 관련 남북교류협력 사례

1. 1990년대, 간접 접촉

1980년대 중후반부터 역사문화 분야에서 남북 학자들의 간접 접촉이 있기는 하였지만 고구려 고분벽화 주제로 학술회의에서 처음 만난 것은 1990년 일본에서 열린 제1회 국제학술

³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2007.11.16”, 《남북정상선언 이행 종합기획단》 통일부(<http://blog.daum.net/007nis/13028413>)

⁴ “문화재청, 남북문화재 교류 및 협력사업 본격 시동-남북문화재교류사업단 신설 및 8일 남북 문화유산 정책포럼 출범”, 《보도자료》 문화재청 2019.3.7. (http://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newsItemId=155701268§ionId=b_sec_1&pageIndex=45&pageUnit=10&strWhere=&strValue=&sdate=&edate=&category=&mn=NS_01_02)

심포지엄 참가를 통해서이다. 심포지엄은 아시아사학회가 주최하고 요미우리 신문이 후원하여 ‘동아시아의 재발견-5세기 연구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남한에서는 김정학과 신경철이 참가하여 한반도 남부 지방의 가야사 연구 현황과 한일 교섭관련 유적유물을 소개하였다. 북한에서는 박시형과 손영중 등이 안악3호분과 덕흥리 벽화고분을 소개하였고 무덤의 주인공 문제에 대한 북한 학계의 견해를 발표하였다.

1991년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장춘에서 제2회 아시아사학회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북한에서는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강인숙과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박진욱 등이 참석하였으며 남한에서는 정신문화연구원 강인구, 한남대 최병현, 목포대 최성락, 부산대 정징원, 서울대 노태돈 등 20여명이 참가하였다. 학술회의 참가자들은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고구려 시기 국내성 고도 集安으로 이동하여 장군총, 광개토태왕비, 태왕릉을 비롯하여 오회분, 무용총, 각저총 등 고구려 벽화를 둘러보았다.⁵

1993년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集安에서 ‘제1회 고구려 문화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남한의 사단법인 해외한민족연구소와 중국조선사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조선일보와 롯데그룹이 협찬하였다. 고구려의 국내성 천도 199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남북한,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지의 학자들이 대거 참여였다. 학술회의는 3부로 나누어 고구려의 형성과정이나 정치 사회사 및 광개토태왕비에 관한 내용 등 총 1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학술회의에서 남북한의 역사학자와 중국 연구자들 사이에는 고구려사를 둘러싸고 큰 인식차를 갖고 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다. 종합토론에서 중국의 耿鐵華가 ‘고구려는 고대 중국 변방 소수민족의 정권’이라고 강변하자 당시 83세의 노학자인 북한의 박시형이 오늘날의 영토 개념으로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보는 시각의 오류를 지적하였고 이에 다소 격앙된 일부 중국 학자의 소란이 일기도 하였다.⁶ 학술회의 이후 고구려 유적 답사가 진행되었는데 오회분 4.5호분, 각저총, 무용총, 장천1호분 등 고구려 고분벽화를 직접 참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⁷

⁵ 하일식, 「고대사와 고대문화에 관한 학술 교류」, 『남북문화유산 교류사』(국립문화재연구소, 2018), pp.71-73.

⁶ 『韓民族共榮體』 제2호(사단법인 海外韓民族研究所, 1994), pp.139-140, pp.274-275.

⁷ 당시 학술회의와는 별도로 조선일보와 함께 고구려 유적 답사 및 촬영을 위해 서울대 안휘준 교수와 문화재연구소 조유전 실장 등도 집안에 왔다. 안 교수는 당시의 소감을 “그동안 우리가 도록이나 사진으로만 접할 수 있었던 무용총, 각저총, 장천1호분, 사신총, 삼실총 등을 실제로 보고나서는 시각적 충격이 너무 커 배탈이 날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위의 책, p.108) 이때 촬영한 벽화 사진들을 조선일보사가 기획하여 <아! 고구려>라는 주제로 국내 순

고구려연구회는 일본 學習院大學, 在日朝鮮歷史考古學協會와 공동으로 1997년 7월 20일부터 21까지 제3회 ‘고구려 국제학술회의: 고구려 고분벽화’를 가쿠슈인대학 창립백주년 기념회관에서 개최하였다. 당시 고구려 고분벽화는 북한과 중국에서 100기 가까이 발견되었고 다양한 무덤 구조와 풍부한 내용으로 인해 고구려사 연구에서 사료의 부족을 보완해줄 수 있는 자료로서 중시되었다. 하지만 고구려벽화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하지 못한 우리 학계의 처지에서 고구려벽화를 전문 주제로 관련 학자들이 각자의 연구의 성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자는 취지로 중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북한의 학자들을 초청한 것이다. 남북교류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재일 조총련계 인사와 재일조선역사고고학협회 및 대학 등 유관기관을 접촉하여 어렵게 성사되었지만 결국 학술회의에 북한 학자들은 참석하지 못하였다.

학술회의에서는 남북한이 각각 4편, 중국과 일본이 각각 3편씩 모두 1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번호	발표자	국적	논문제목
1	전호태	남한	고구려 고분 벽화 연구사
2	박진욱	북한	고구려 벽화 무덤의 유형 변천과 편년에 관한 연구
3	白石太一郎	일본	일본의 고분 벽화와 고구려의 고분벽화
4	劉萱堂	중국	중국집안고구려 벽화묘와 요동요서, 한위진 벽화묘의 비교연구
5	이은창	남한	고구려 고분 벽화와 신라백제 가야 고분 벽화에 관한 비교연구
6	손영종	북한	고구려 벽화 무덤의 묵서명과 피장자
7	武家昌	중국	미창구장군묘벽화 및 여러 벽화묘의 피장자 연구
8	한인호	북한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 본 고구려의 건축에 관한 연구
9	深津行徳	일본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서 본 종교와 사상에 관한 연구
10	李殿福	중국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서 본 고구려 사회생활 풍속에 대한 연구
11	김미자	남한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 본 고구려복식에 관한 연구
12	이준길	북한	고구려 고분 벽화를 통해 본 고구려의 천문학 발전에 관한 연구
13	東潮	일본	고구려 벽화고분의 석실구조에 관한 연구
14	이애주	한국	고구려 고분 벽화에 나타난 춤 사위의 되살림

회 전시를 함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고구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고구려 고분 벽화의 연구사 정리를 비롯하여 유형과 변천 및 석실 구조, 중국이나 일본 또는 한반도 내 벽화들과 비교 그리고 고구려 고분화를 통해 본 건축, 종교와 사상, 사회생활 풍속, 복식, 천문학 발전에 대해 논하고 직접 벽화에 나타난 춤사위를 재현하는 공연이 펼쳐 지기도 하였다. 학술회의의 결과물은 『高句麗 古墳壁畫』라는 책자로 국내에서 발간되었는데 발표 논문과 토론문을 비롯하여 참가자 약력까지 정리하여 실었다.⁸

2. 2000년대, 직접 교류

1)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결성

남북 학자들의 직접 교류는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듬해인 2001년 3월 1일부터 7일까지 평양 인민대학습당에서 ‘한일합방의 비법성에 관한 남북공동전시회’가 개최됨으로서 최초로 성사되었다.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초청으로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이성무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성대경 전 성균관대 교수,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가 행사에 참석했으며 ‘1910년 일제 강점의 불법성’이란 주제로 남북공동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남북 학자 및 관계자들이 주도하여 평양에서 열린 첫 공동 학술행사라고 할 수 있다.⁹

남북의 화해협력 분위기 속에서 남측의 역사학자들은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북측에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구성을 제안하였다. 2003년 양측이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구성에 합의함으로써 역사문화 분야에서 남북 간 첫 상설조직이 결성되었다. 2004년 2월 25일 평양 조선미술박물관에서 개최된 ‘일제 약탈문화재 반환을 위한 남북공동 학술토론회 및 자료전시회’에는 남측의 이만열 국사편찬위원장을 비롯한 역사학자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97명이 대거 참석하였다. 북측에서 조선력사학회 허종호 회장과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리종혁 부위원장 등 모두 200여명이 참석하여 대규모 행사로 치러졌다. 이때 남북은 유엔교육문화기구(유네스코)에 일제 침략과 약탈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서한을 채택하였다. 학술토론회 이후 강서대묘와 덕흥리벽화고분 등 고구려 유적을 공동 답사하였으며, 이는 북한의 고구려 고분 벽화가 공식적으로 남측 인사들에게 공개된 최초의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2월 28일 평양

⁸ 고구려연구회 편, 『高句麗 古墳壁畫』高句麗研究第4輯(학연문화사, 1997).

⁹ 「평양서 첫 남북공동 학술전시회」, 『동아일보』(2001.2.27).

양각도 호텔에서 남측의 강만길과 북측의 허중호를 대표로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결성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하였다. 4월에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남측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2) 북한 고구려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지원

2001년 1월 북한이 고구려의 고분군¹⁰을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신청하자 중국은 국가적 프로젝트로 준비하던 이른바 ‘동북공정’에 차질이 생길까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중국 당국은 외교력을 동원하여 북한에서 신청한 고구려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지연시키는 한편, 막대한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고 集安과 桓仁 지역의 고구려 유적을 정비하여 2003년 1월 22일 ‘고대 고구려 왕국의 수도와 무덤군(Capital Cities and Tombs of the Ancient Koguryo Kingdom)’¹¹이란 명칭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2004년 6월 말 蘇州에서 개최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28차 총회에서 등재 여부를 심의하게 된 것이다. 중국이 이미 ‘동북공정’을 추진하며 고구려사를 왜곡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고구려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심의 통과를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관련부서 및 학계 관계자로 구성된 북한 고구려 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지원을 위한 대표단을 구성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28차 총회에 파견하였다. 대표단은 외교부 박흥신 문화협력 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부 문화협력과 권영대 서기관, 주불대사관 김인철 서기관, 문화재청 최중덕 문화재교류과장, 문화재청 김정화 문화재교류과 사무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허권 문화팀장, 동국대 이해은 교수, 성균관대 이상해 교수, 카톨릭대 조도순 교수, 주상해총영사관 김홍곤 영사, 고구려연구재단 고광의 부연구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북측 대표단은 문화보존지도국 리의하 부국장이 대표로 조선문화보존사 리기웅 실장, 주불유네스코 대표부 김창민 참사, 유네스코 민족위원회 한석철, 문화보존지도국 외사처 강영민 통역관 등이 참석하였다.

회의는 6월 28일 개막하였으며 북한과 중국이 신청한 고구려 유적은 7월 1일에 심의하

¹⁰ 동명왕릉 주변 고분군(15기/이중 벽화고분 3기), 호남리 사신총 주변 고분(34기/벽화고분 1기), 덕화리 고분군(3기/벽화고분 1기), 강서삼묘(3기/벽화고분 2기), 독립 고분(8기/벽화고분 8기) 등이 포함돼 있다.

¹¹ 오녀산성, 국내성, 환도산성, 통거우(洞溝) 고분군, 태왕릉과 광개토대왕비, 장군총, 오회분, 산성 아래의 고분들: 왕자총(王子墓), 기타: 엽모총환문총, 각저총, 무용총, 마조총(馬槽墓), 장천 1호분, 장천 2호분, 임강총(臨江墓), 서대총(西大墓), 천추총(千秋墓) 등이 포함된다.

였다. 오전에 먼저 중국이 신청한 ‘고대 고구려 왕국의 수도와 무덤군(Capital Cities and Tombs of the Ancient Koguryo Kingdom)’이 심의되었다. Giora Solar ICOMOS 재무관은 유적에 대한 평가 보고에서 고구려를 신라, 백제와 함께 3개의 한국 부족(Korean tribes)의 하나라고 언급하고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고구려는 공세적이고 확장 지향적(aggressive, expansionist)이었으며 통일 중국 隋 왕조를 멸망시켰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오만, 인도, 이집트, 콜롬비아, 일본, 나이지리아가 간략한 발언을 하였으며 이견 없이 등재가 결정되었다.

점심 시간이 되어 북한이 신청한 고구려 고분군의 심의는 오후 3번째로 미루어졌다. 당시 우리 대표단은 중국의 외교력에 의해 반려된 경험이 있던 지라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 특히 중국이 이미 등재가 확정된 상태에서 북측의 심의 순서가 너무 뒤로 미루어지면 어떠한 상황으로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대표단은 북한 유적에 앞서 심의가 배정된 베넵과 인도 대표단에게 순서 조정을 부탁하여 당초 보다 앞당겨서 중국에 이어서 심의를 받았을 수 있었다. 먼저 Giora Solar ICOMOS 재무관이 북한 고구려 고분에 대한 평가보고에서 27차 회의에서 반려된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설명하였고 중국, 이집트, 콜롬비아, 일본, 오만, 영국이 지지 발언을 해주어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등재가 확정되었다.

남북의 대표단은 고구려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며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하였다. 북한 대표단은 그간 국제사회에서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남측이 보여준 노력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역사문화 방면에서 남북 당국 간 교류협력이 결실을 맺음으로서 향후 다방면으로 직접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3) 고구려 고분벽화 관련 학술회의

북한의 고구려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남측의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북측의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공동으로 2004년 9월 11일부터 12일 까지 금강산에서 고구려 고분군 사진전시회(후술)와 함께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다.¹² 학술토론회는 9월 11일 사진전 개막식에 이어 진행되었으며 북측의 손수호 고고학학회 위원장과 리영식 김일성종합대 교수, 남측의 최광식 고려대 박물관장, 서영수 단국대 교수, 한발대 공석구 교수 등이 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¹² 『고구려 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 남북공동 사진전시회 및 학술토론회』 팸플렛 (남북역사학자협의회, 2004).

2005년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한국의 고구려연구재단, 북한의 조선력사학회, 러시아극동국립기술대학교가 공동으로 블라디보스톡에서 남북러 학자 46명이 참여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¹³ 고구려 벽화 관련해서는 김일권의「평양지역 고구려 천문벽화무덤의 천문도 복원」, 김진순이「고구려중기(5세기~6세기 초) 고분벽화에 보이는 불교적 제재와 그 연원」을 발표하였고 북측에서는 지승철이「무덤벽화에 반영된 고구려의 정치, 군사 및 문화의 독자성」이란 논고를 발표하였다. 고구려연구재단 김정배 이사장은 학술회의 인사말에서 “해방 후 북과 남의 역사학계 학자들이 가장 큰 규모로 참가한 기념비적인 회의이며, 또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동족의 이름으로 공동의 마음을 교환하는 아주 뜻 깊은 행사”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고구려연구재단은 2005년 실시한 평양 일대 고구려유적 남북공동 학술조사(후술)의 성과에 기초하여 2005년 11월 29일 금강산호텔에서 북측 사회과학원과 ‘남북 고구려유적 공동조사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¹⁴ 남측에서는 ‘안악3호분의 주인공 문제’(공석구.한밭대), ‘고구려 고분벽화의 묘주상 연구’(김진순.고구려연구재단), ‘고구려고분벽화에 보이는 불교회화’(문명대.동국대), ‘진파리 고분군 구성에 관하여’(강현숙.동국대), ‘평양의 고구려도성’(임기환.고구려연구재단)이 발표되었다. 북측은 ‘안악3호무덤의 피장자와 신원장수산 유적에 대하여’(조희승.조선사회과학원 이하 같음), ‘태성리3호벽화무덤의 축조연대와 피장자 연구’(김인철), ‘안악3호무덤 행렬도의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송순탁), ‘덕흥리벽화무덤에 보이는 유주의 성격’(강세권)을 발표하는 등 모두 9편의 논고가 제출되었다.

2005년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열린 제7차 코리아학 국제학술토론회에서는 고구려벽화 관련 주제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학술회의 이후 참가한 남북학자들이 함께 고구려 유적을 답사하기도 했다. 또 2007년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학대학(SOAS)에서 열린 제8차 코리아학 국제학술토론회에서는 고려대 최광식 교수가 ‘북한의 고구려 고분벽화 보존실태’를 발표하였다.

2008년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국제고려학회(ISKS,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는 동북아역사재단과 공동으로 캐나다 밴쿠버 UBC에서 ‘동북공정과 고구려(Workshop on

Dongbei gongcheng and Koguryo)’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¹⁵ 중국에서는 中國社會科學院 邊疆史地研究中心 馬大正, 厲聲 主任 등 동북공정의 핵심 인물이 참석했고, 남한에서는 동북아역사재단의 김용덕 이사장을 비롯해 금경숙, 김현숙, 고광의 연구위원과 서울대 노태돈, 고려대 최광식 교수를 비롯한 고구려 연구자들이 참가했다. 그리고 미국 하와이대 Hugh Kang 교수와 하버드대 Byington 교수, 일본 早稻田大學의 李成市 교수 등의 역사학자가 참가했다. 북한에서도 사회과학원 부원장의 인솔로 조희승 역사연구소장, 손수호 고고학연구소장 고구려사 전문가 등 7명이 참석했다. 모두 2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고구려 벽화 관련해서 최광식 교수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구려 고분벽화 모사도와 유리건판’에 대해 소개하고, 고광의 연구위원이 ‘최근 중국내 고구려 유적의 관광산업화 현황’이라는 발표에서 중국 소재 고구려 고분벽화 및 유적의 훼손과 관리 부실에 대해 지적하였다.

2011년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분소 역사고고민속학연구소가 주최하고 남한의 동북아역사재단과 중국의 연변대학이 후원하여 남·북·중·러·일 학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회의가 ‘高句麗·渤海史 研究의 새로운 地平’이라는 주제로 열렸다.¹⁶ 학자들은 11월 24일에 미리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하여 크라스키노 발해 성터를 공동 답사하였다. 학술회의는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한국 8명, 북한 7명, 중국 6명, 러시아 15명, 일본 2명 등 총 38명이 참가하여 3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주로 현지의 발해 유적 발굴 관련 소개와 발해사 전반에 걸친 연구 주제가 많았고 고구려사 관련 내용은 대략 6편 정도가 발표되었다. 고구려사 관련 논문 중에서는 2009년 평양시 낙랑구역 동산동과 2010년에 남포시 용강군 옥도리에서 발견된 고구려벽화에 대한 논고 3편이 발표되었다. 북한의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인류고고학연구실 지화산 실장이 ‘최근에 발견된 동산동, 옥도리벽화무덤에서 주목되는 문제’, 남한의 동북아역사재단 고광의 연구위원이 ‘옥도리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고찰’, 중국 연변대학 鄭京日 교수가 ‘최근 조사발굴된 고구려벽화무덤에 대하여’라는 논고를 통해 새로 알려진 고구려벽화에 대해 소개하는 한편 도상의 해석과 편년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2014년은 고구려 광개토태왕비가 건립된 지 1400년이 되는 해로서 남·북·중·일의 학자 등 56명이 비석이 있는 중국 集安에 모여 기념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¹⁷ 학술회의는 10월 20일부

¹³ 고구려연구재단.조선력사학회.러시아극동국립기술대학교 편, 『남북러 국제학술회의 고조선 고구려 발해 발표 논문집』(고구려연구재단, 2005).

¹⁴ 김정배, 『한국과 중국의 북방사 인식』(세창출판사, 2018), pp. 241-244.: “남북 역사학자들 금강산서 고구려유적 학술회의”, 연합뉴스 2005.12.1.(<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1162732>)

¹⁵ 동북아역사재단 편, 『동북공정과 고구려』 내부자료 (동북아역사재단, 2010): 정광, 『남북 학술교류의 가능성』, 『교수신문』(2012.8.27.)

¹⁶ 『남북중러일 국제학술회의: 高句麗·渤海史 研究의 새로운 地平』자료집 (동북아역사재단, 2011).

¹⁷ 『纪念好太王碑建碑1600周年国际学术会议』會議手册 (中国社会科学院中国边疆研究所, 韩国东北亚历史财团历史研究室, 2014).

터 21일 오전까지 6부로 나누어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남측 12명, 북측 5명, 중국 11명, 일본 2명이 논문을 발표하였다. 5부까지는 광개토태왕비 관련 주제가 주를 이루었고 마지막 6부에서는 최근 고구려 고고학 성과 및 연구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고구려 고분벽화 관련하여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손수호 소장은 ‘새 세기에 발굴된 고구려벽화무덤들과 주목되는 문제에 대하여’라는 논고를 통해 2000년대 이후 북한에서 발견된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해 소개하였다. 평양 일대에서 동산동벽화무덤을 비롯하여 호남리벽화무덤, 고산동1호벽화무덤, 민속공원1호벽화무덤이 발굴되었고 남포시와 황해북도 연탄군 일대에서는 태성리3호벽화무덤과 옥도리벽화무덤, 송죽리벽화무덤을 발굴하였는데, 특히 태성리3호벽화무덤, 동산동벽화무덤, 옥도리벽화무덤, 송죽리벽화무덤은 독특한 구조형식과 풍부한 벽화 내용으로 인하여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하였다. 이 밖에도 민속공원1호벽화무덤, 고산동1호벽화무덤, 호남리18호벽화무덤, 대성동벽화무덤 등의 조사발굴 성과를 소개하고 학술회의 이후에는 집안의 오희분 5호묘 등을 함께 답사하였다.

4) 고구려 고분벽화 관련 전시회

〈특별기획전 고구려! - 평양에서 온 무덤 벽화와 유물〉전은 서울 코엑스 3층 특별전시장에서 2002년 12월 6일부터 2003년 3월 5일까지 전시하고, 다시 5월 25일까지 연장 전시되었다.¹⁸ 전시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남측 민화협), 중앙일보, SBS가 주최하고 특별기획전 고구려! 추진위원회, (주)바인홀딩스가 주관하였으며 통일부와 문화관광부가 후원하고 조선중앙력사박물관과 재일본조선력사고고학협회가 특별후원하였다.

전시 유물은 ‘영강 7년 금동광배’ 등 북한의 국보 4점을 포함한 진품 유물 30점, 실물크기 복원 벽화무덤 5기, 실물크기 벽화모사도 61점, 동명왕릉 등 축소 복원 유적 4점, 개마무사, 무장보병 복원 무사상 2점, 복원 유물 38점, 복원 악기 10점, 복원 의상 10점, 각종 유적 사진 32점 등이다. 유물은 ‘특별기획전 고구려! 추진위원회가 평양 남포로 들어가 고구려 국보 문화재와 고분 및 벽화 등 관련 고구려 유물을 직접 인수해 온 것이다.

이 전시 유물들은 2004년 4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남북공동기획 고구려문화전: 우리의 땅, 살아오는 고구려〉라는 주제로 서울 한솔동의보감 7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전시에 다시 활용되었다. 전시 도록을 살펴보면 남측의 민화협, 중앙일보, SBS 등의 대표자가 바뀌고 남

¹⁸ 특별기획전 고구려! 추진위원회, 『특별기획전 고구려! 평양에서 온 무덤벽화와 유물』(우진인쇄, 2002.)

측의 국립중앙박물관장과 북측의 조선중앙력사박물관장이 빠지는 등 주최, 주관 및 후원의 변화가 있을 뿐 원고와 도판 등 전체적인 내용은 〈특별기획전 고구려!〉와 거의 같다.¹⁹ 전시 유물은 평양 안학동 출토 불경책 조각이 평원 원오리 흙부처와 평양 낙랑구역 출토 흙부처 거푸집으로 교체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동일하고 다만 고구려벽화 모사도 60여점은 새로 제작한 것이다.²⁰

북한의 고구려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하여 남북측의 역사학자협의회는 2004년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에서 공동 사진전시회를 개최하였다. 고구려무덤 15기에서 선정한 70점의 벽화 사진이 전시되었다. 이후 사진전시회는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대한민국 국회,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서울시 관악구,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대전 등지에서 순회전시를 하였다. 전시회 이후 후속 작업으로 전시 도록 『고구려 벽화고분의 세계』²¹가 출간되었다.

〈광복 60주년 기념 남북공동기획 고구려 대탐험전〉은 2005년 4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장 및 야외전시장에서 개최되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국립중앙과학관, 중도일보가 공동 주최하였으며 〈남북공동기획 고구려문화전〉에 출품된 벽화고분의 모형, 벽화모사도 60여점, 연가7연명금동일광삼존상을 비롯하여 수막새기와, 벽돌, 시루, 단지, 말등자 등 고구려 유물 41점 및 재현한 복식과 악기 등 300여점이 전시되었다. 이 밖에도 3D 입체영상을 통해 평양성을 실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활용하였다.

〈고구려 미술 특별전〉은 우리나라가 2005년 독일 베를린에서 아시아태평양 주관을 맡아 주빈국으로 ‘독일 한국인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9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베를린 아시아미술관에서 개최되었다. 전시에는 한강변 아차산 고구려 보루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 17점과 민화협이 소장하던 금동보관 및 복제유물 3점과 영상물 2점 및 전시패널 15점 등을 비롯하

¹⁹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2004 남북공동기획 고구려문화전』도록 (동광문화인쇄사, 2004).

²⁰ 오영찬, 『고대사와 고대문화에 관한 학술 교류』, 『남북문화유산 교류사』(국립문화재연구소, 2018), p. 230. 또 전시 모사도에 대한 주최측의 소개를 보면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당시 ‘특별기획전 고구려!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직접 남포에 가서 유물을 수령한 최종택 교수의 전언과 전시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2002~2003년 전시된 모사도는 일본 조선대학교 소장품을 대어한 것이고, 2004년 전시에는 만수대창작사 등이 제작하여 가져 온 것으로 보인다.

²¹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남측위원회, 남북학술교류협회 편, 『고구려 벽화고분의 세계: 고구려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기념 남북공동전시』(2004).

여 고구려 벽화 관련 자료가 포함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1910년대에 제작한 고구려 벽화모사도 37점 및 벽화 실사출력물 5점 그리고 민화협이 소장하던 덕흥리벽화고분과 광개토왕릉비의 모형이 전시되었다.

〈고구려무덤벽화 사진전시회〉는 2006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연합뉴스와 일본 교도통신이 공동 주최한 〈고구려 고분벽화 사진전〉을 평양으로 옮겨 전시한 것이다. 안악 3호분, 덕흥리 벽화고분, 쌍영총, 호남리 사신총, 강서대묘, 강서중묘 사진에 안악 1호분을 더하여 평양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서 2007년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되었다. 북한의 조선중앙텔레비전과 노동신문 등 주요 매체에서 개막식과 전시 내용을 보도하였다.²²

〈고구려 고분벽화 특별전시회〉는 2002년 〈특별기획전 고구려!〉 전시를 위해 제작된 안악 3호분 등 5기의 고구려 벽화 모형과 2004년 ‘고구려문화전’에 전시된 모사도 63점이 2015년에 민화협을 통해 한성백제박물관에 기증된 것을 일부 수복하여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7년 2월 26일까지 전시한 것이다.²³

5) 고구려 고분벽화 조사발굴 및 보호 사업

2005년 7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고구려연구재단과 북한의 사회과학원 및 문화보존지도국 인원들로 구성된 고구려유적 남북공동조사단은 평양 일대의 고구려 유적을 공동 조사하였다.²⁴ 공동조사단은 모두 15인으로 구성되었다. 남측 단원은 고구려연구재단의 김정배 이사장을 비롯하여 재단 임직원과 외부 교수 등 10인으로 구성되었다. 북측은 리승혁 문화보존지도국 박물관처장 등 5인 참가하였다.

주요 조사 대상은 동명왕릉과 진파리 고분군, 진파리 1호분, 덕흥리 벽화무덤, 수산리 벽화무덤, 강서대묘, 강서중묘, 강서소묘, 안악 3호분, 태성리 3호분 등이다. 진파리고분군은 군집을 이룬 10여기의 무덤 외형과 분포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진파리 1호분은 벽돌로 막은 입구를 개방하여 무덤 내부의 구조를 실측하고 벽화를 촬영하였다. 덕흥리 벽화무덤, 수산

리 벽화무덤, 안악 3호분 및 강서3묘는 외부와 내부 구조를 확인하는 한편 필요한 부분을 실측하였다. 이들 무덤 내부는 벽화를 보호하기 위한 유리벽이 설치되어 있어 유리벽 안쪽에 들어가서 벽화의 세부를 촬영하였다. 강서 소묘의 경우는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실측도면만 전할뿐 그간 북측에서도 공식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던 유적으로서 처음 공개되었다. 태성리 3호분은 2000년 12월에 발견된 것으로 남측학계에 처음 공개되었다. 무덤은 대부분 파괴되어 하부 구조만 남아있으며 일부 벽면에 벽화의 흔적이 있다. 무덤의 내부 구조는 안악 3호분과 유사하지만 회랑의 위치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당시 조사에서 촬영한 벽화 사진은 『평양일대 고구려유적』 남북공동조사보고서의 출판을 통해서 공개하였다.

남북공동 고구려 벽화고분 보존 실태조사는 남측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가 합의하여 2006년 4월 19일부터 5월 2일까지 실시하였다.²⁵ 공동조사단은 남측에서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고구려특위 최광식 위원장과 이태호 명지대 교수를 비롯한 역사, 미술사, 고고학, 보존과학 및 사진 전문가 등 11명, 북측에서는 문화보존지도국 박물관 처장 리승혁을 중심으로 7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단원 이외에 남측에서 유홍준 문화재청장과 국립문화재연구소, 통일부 관계자와 중앙일보 기자 등이 참가하였고, 북측에서도 문화보존지도국 리의하 부국장, 민화협 박경철 부위원장 등 관계부처 인사가 참여하였다.

조사 대상은 평양 및 안악지역 일대의 벽화고분으로서 진파리 1호분과 4호분, 호남리사신총, 수산리벽화고분, 덕흥리벽화고분, 강서대묘, 강서중묘, 안악 3호분 등 8개 고분이었다. 또한 벽화가 없는 고분으로 동명왕릉지구의 고분군 가운데 진파리 7호분과 강서소묘의 내부를 조사하였다. 벽화에 대한 인문과학적 조사뿐만 아니라 벽화의 진단, 고분의 환경, 안료 분석, 미생물의 확인 등 자연과학적 조사가 이루어져 고구려 고분벽화의 보존실태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2007년에는 남북공동 고구려 벽화고분 보존사업이 진행되었다.²⁶ 환경측정 장비의 설치, 안료의 특성 파악, 벽화의 손상도면 제작, 표면 오염물질 제거를 비롯한 응급보존처리 등의 작업을 진행하여 상대적으로 훼손이 심한 고분벽화 보존에 대해 남북이 공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²² “北TV, ‘고구려 고분벽화 사진전’ 소개”, 연합뉴스, 2017.10.1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01&aid=0001921134>)

²³ “〈고구려 고분벽화〉 특별전시회 개막”, 《보도자료》 한성백제박물관, 2016.12.27.(http://baekjemuseum.seoul.go.kr/board/index.jsp?boardid=SBM0504000000&mmode=content&mpid=SBM0504000000&skin=notice&pid=12672&strsearch=&d_s_que=&cpge=4)

²⁴ 고구려연구재단 편, 『평양일대 고구려유적』 南北共同遺蹟調査報告書 (고구려연구재단, 2005.11 초판, 2005.12 증보); 김정배, 『한국과 중국의 북방사 인식』 (세창출판사, 2018), pp. 230-241.

²⁵ 남북역사학자협의회·국립문화재연구소, 『남북공동 고구려 벽화고분 보존 실태 조사 보고서』 제1권(조사보고)·제2권(도판) (남북역사학자협의회·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²⁶ 남북역사학자협의회·국립문화재연구소, 『남북공동 고구려 벽화고분 보존연구 보고서』 (남북역사학자협의회·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2010년 동북아역사재단은 연변대학을 지원하여 북측 사회과학원과 공동으로 남포시 용강군 일대 유적을 발굴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구려 벽화고분 1기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당시의 사진과 도면은 보정과 정사 과정을 거쳐 2011년에 『옥도리 고구려 벽화무덤』²⁷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옥도리 고구려 고분벽화는 이 발굴 조사를 통해 학계에 처음 알려졌는데 천정과 동벽 일부가 훼손되기는 하였지만 나머지 벽면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북벽에 묘주 부부도와 ‘大王’명 묵서, 동벽과 서벽에 각각 춤과 사냥 그림, 사신도 등이 남아 있어 고구려 시대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 받는다. 벽화는 북한 국보 198호로 지정되었다.

6) 고구려 고분벽화 관련 방송 교류

MBC는 2004년 중국과 북한의 고구려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고구려 유적에 관한 특집 다큐멘타리를 제작하였다. 당시 ‘고구려 문화전: 우리의 땅, 살아오는 고구려’를 개최하던 시점에 남측과 북측의 민화협이 주선으로 방북 취재가 성사되었다. 취재팀은 서장창 시사교양국 부장 등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고구려 고고학자인 고려대 최종택 교수가 동행하여 2004년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덕흥리고분, 동명왕릉, 진파리 1호분, 강서대묘, 대성산성, 평양성 등을 촬영하였다. 남측의 방송사로서는 덕흥리 고분, 진파리 1호 고분, 강서대묘를 최초로 촬영하였고 <특집 다큐멘타리: 살아오는 고구려>라는 제목으로 2004년 6월 24일 방영되었다.

KBS 역시 2004년 북한 고구려 역사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맞춰 남북 역사학자의 고구려 유적 공동답사를 통해 고구려 역사, 문화의 역동성과 계승의 문제를 조명하는 다큐멘타리를 기획하였다.²⁸ 이연식 PD를 비롯한 11명의 제작진과 서길수 서경대 교수, 한국외국어대 여호규 교수 및 고구려 고분벽화 전문가인 울산대 전호태 교수 등이 8일부터 18일까지 평양성, 안학궁, 대성산성, 황룡산성, 조선중앙력사박물관, 수산리 고분, 안악 3호분, 진파리 1호분, 강서대묘 등을 촬영하였다. 방북 취재한 결과물은 KBS 스페셜 ‘고구려의 부활’이라는 타이틀로 2편이 제작되었으며 그중 ‘고구려 벽화, 세계와 만나다’는 7월 11일 저녁 8시에 방영되었다.

²⁷ 동북아역사재단 편, 『옥도리 고구려 벽화무덤』(동북아역사재단, 2011).

²⁸ “[KBS 스페셜] 고구려의 부활(2편) - 고구려 벽화, 세계와 만나다.(2004.07.11.)”, 《KBS 통일방송연구》(<http://office.kbs.co.kr/tongil/archives/22173>)

IV. 고구려 고분벽화 남북교류협력의 성과와 의의

남북 간 역사문화 관련 교류는 1990년대 초반 일본과 중국 등 제3국에서 열린 학술회의의 참가를 통해 남북 학자들이 처음 만나면서 시작되었다. 東京과 長春에서 거행된 아시아사학회 국제학술회의에서 북측 학자들이 고구려 고분벽화 관련 주제를 발표하였고 참가자들이 함께 고구려 고분벽화 등 유적을 답사함으로써 남북 학자들이 고구려 고분벽화를 비롯한 고구려사 전반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남한 학자들의 중국 방문이 활발해지고, 중국의 연변대학 등을 통해 북한과 연계한 학술회의가 추진되었다. 1993년 중국 集安에서 개최된 ‘제1회 고구려문화 국제학술회의’는 ‘고구려’를 주제로 한 최초의 국제학술회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또한 이 학술회의에서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사업인 ‘동북공정’이 이미 배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97년 고구려연구회가 주도하여 일본 東京에서 개최된 ‘고구려 국제학술회의’는 ‘고구려 고분벽화’를 단일 주제로 한 최초의 국제학술회의였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미가 있다. 당시 북한학자들이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박진욱, 손영중, 한인호, 이준걸 등 북한을 대표하는 학자들이 논문을 보내와 고구려 고분벽화를 주제로 남북 학자들의 논문이 함께 자료집에 수록되었다. 또한 조총련 계열의 재일조선역사고고학협회와 공동 주최 한 점도 남북 학술 교류사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들어서 남북 관계가 호전되고 북에서 단군릉을 발굴하는 등 고조선 관련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를 매개로 남북 학자들이 직접 교류하기 시작하였다. 남북 학술교류는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을 기점으로 남북이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직접 접촉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한편 중국이 이른바 ‘동북공정’으로 고구려사를 왜곡하는 사실이 알려지자 남북 학계는 학술적 공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양측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위하여 ‘남북역사학자협의회’를 2004년 평양에서 결성하였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발족으로 남북은 역사문화 분야의 교류에서 그동안 제3국을 통하던 간접 방식에서 남북 당사자가 직접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를 갖게 되어 보다 체계적인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004년 6월 중국 蘇州에서 개최된 세계유산위원회 제28차 총회에 북측 고구려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지원하기 위한 남측 정부대표단 파견은 남북 당국 간 직접적인 교류협력 사례라 할 수 있다. ‘동북공정’으로 중국과 대립하던 상황에서 중국과 북한의 고구려 유적

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으로서 고구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에 기여함은 물론 세계 유산위원회의 모니터링 제도에 따라 고구려 고분벽화를 비롯한 유적의 보호 및 보존 조치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 이후 고구려 고분벽화와 관련된 남북의 교류협력 사례는 학술회의 7건, 전시회 7건, 발굴조사 및 보호 사업 4건, 방송 교류 2건 등 총 20건 정도가 추진되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북한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대와 맞물려 추진된 <특별기획전 고구려! 평양에서 온 무덤벽화와 유물> 전시는 국보 등 북측의 유물이 대거 남측에서 전시된 첫 번째 사례이다. 이 유물들은 2004년 ‘남북공동기획 고구려문화전: 우리의 땅, 살아오는 고구려’와 2005년 ‘광복 60주년 기념 남북공동기획 고구려 대탐험전’에 다시 전시됨으로서 고구려와 고분벽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전시된 안악 3호분을 비롯한 벽화무덤 5기의 모형과 벽화모사도 60여점은 만수대창작사, 평양미술대학, 평양건축건축대학 등의 화가와 교수진 및 기술진 2000여명이 직접 참여하여 제작한 것으로 북측의 고구려 고분벽화 모사 및 모형 제작의 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때 전시한 벽화모사도와 벽화고분의 모형은 민화협을 통해 현재 한성백제박물관에 기증되어 보관되고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와 관련하여 남북 방송 교류협력은 2004년 고구려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MBC와 KBS가 방북하여 취재한 결과를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방영한 것이 최초이다. 2004년 6월 24일에 <MBC 특집다큐 ‘살아오는 고구려’>를 방영하였으며, 7월 11일에는 <KBS 스페셜 ‘고구려의 부활(2편)-고구려 벽화, 세계와 만나다’> 방영되었다. 남측 방송사들이 북한 고구려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점에 맞추어 시의적절하게 덕흥리 벽화고분, 동명왕릉, 진파리 1호분, 고분, 안악 3호분, 강서대묘 등을 취재하여 방영함으로써 고구려와 고분벽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키는데 일조하였다.

2004년 9월 금강산에서 개최된 ‘고구려 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 남북공동 사진전 전시회 및 학술토론회(9.11~12)’는 고구려 고분 및 벽화를 주제로 남북이 직접 합의하여 북측에서 개최된 고구려 고분벽화 관련 최초 행사이다. 남북 역사학자들은 참가자 일동 명의로 내놓은 공동발표문에서 “고구려 역사를 지켜 나가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남북 역사학자들 사이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언급했다. 이 전시는 고구려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하는 한편 당시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해 고구려사에 대한 남북 공조와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았다. 이 전시는 이후 대한민국 국회, 서울 관악구, 대전에서 순회 전시함으로써

서 당시 동북공정 등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켰다.

2005년 2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남·북·러 국제학술회의’는 남북 역사학자 46명이 참여한 광복 후 가장 큰 규모의 학술회의라고 할 수 있다.

고구려연구재단과 북측 사회과학원 등이 2005년에 실시한 ‘평양 일대 고구려유적 남북 공동 학술조사’는 광복 후 최초로 고구려 유적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이다. 당시 동명왕릉, 진파리 고분군, 진파리 1호분, 덕흥리 벽화무덤, 수산리 벽화무덤, 강서대묘, 강서중묘, 강서소묘, 안악 3호분, 태성리 3호분 등 고구려 고분벽화의 고화질 사진을 촬영하여 도록 형태로 학계에 제공함으로써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에 기여하였다. 이 때 촬영한 사진은 이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추진한 고구려 고분벽화 디지털 복원 사업에 요긴하게 활용되었다.

이 학술조사 성과에 기초하여 11월 29일 금강산호텔에서 개최된 ‘남북 고구려유적 공동조사 학술회의’에서 모두 9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가운데 8편이 고구려 고분벽화 관련 내용으로 남북 학자들이 고구려 고분벽화를 주제로 마주 앉아 심도 있는 논의를 한 최초의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안악 3호분 주인공 문제에 있어서는 남측에서 동수묘설을 제기한 반면에 북측에서는 고국원왕릉이라는 주장을 하여 남북 학계의 고구려사 이해에 대한 상당한 간극이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2006년 남북역사학자협의회가 주도한 ‘남북공동 고구려 벽화고분 보존 실태조사’를 통해 진파리 1호분과 4호분, 호남리사신총, 수산리 벽화고분, 덕흥리 벽화고분, 강서대묘, 강서중묘, 안악 3호분 등의 보존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07년에는 ‘남북공동 고구려 벽화고분 보존사업’을 실시하였다. 진파리 1호분과 4호분을 대상으로 환경측정 장비 설치, 안료 특성 파악, 벽화 손상도면 제작, 표면 오염물질 제거를 비롯한 응급조치, 벽화의 제작 기법 등을 정밀 조사하였다. 광복 후 최초로 실시된 남북공동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과학적 조사 및 보존처리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8월 밴쿠버에서 ‘동북공정과 고구려’를 주제로 개최된 학술회의에서는 중국의 동북공정을 담당했던 中國社會科學院 邊疆史地研究中心과 남한의 대응기구인 동북아역사재단 및 북한의 사회과학원 등 관련 당사국 역사 관련 기관의 핵심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고구려사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이 회의에서 남북이 공조하여 중국의 동북공정을 비판하였다. 남측의 오회본 5호묘를 비롯한 고구려 유적의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 제기에 중국 측이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북측은 남측의 발표 자료를 별도로 요청함으로써 중국의 고구려 유적 훼손에 대해 남북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명박정부 들어 남북 관계가 경색되는 상황에서 학술 교류마저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

다. 하지만 그동안 역사학자협의회, 민화협, 고구려연구재단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다져진 학자들 간의 신뢰와 중국의 연변대학 등의 도움으로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다.

2009년 이래 동북아역사재단은 중국 연변대학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북한 지역 고구려·발해 유적 발굴조사 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최근까지 관련 보고서 7책을 발간하였다. 특히 2010년에 옥도리 고구려 벽화무덤의 발굴을 통해 우리 스스로 자료를 확보하여 학계에 제공할 수 있었으며 이는 고구려 고분벽화의 연구사에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11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남·북·중·러·일 국제학술회의: 高句麗·渤海史 研究의 새로운 地平’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분소 역사고고민속학연구소가 자리를 만들고 연변대학이 북한 학자들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당시의 남북 정세에서는 동북아역사재단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공동 주최자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는 고구려·발해를 주제로 관련 5개국이 모두 참여한 최초의 국제학술회의로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2014년 10월 중국 집안에서 개최된 ‘광개토태왕비 건립 1600주년 국제학술회의’는 중국 사회과학원과 동북아역사재단이 공동 주최하여 북측 학자들을 초청함으로써 성사될 수 있었다. 특히 ‘동북공정’으로 남북과 중국 학계가 민감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고구려 고도인 집안에서 남북의 학자들이 함께 모여 고구려사를 비롯하여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을 답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남북 학술교류사에서 새로운 페이지를 장식하는 자리였다고 생각된다.

V. 맺음말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한 남북의 교류협력 성과는 학술 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고구려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남북이 공동의 역사 인식을 갖게 하는 중요한 매개물이란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남북의 교류협력에서 그 어느 분야보다도 유용하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좋은 소재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고구려 고분벽화 관련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고구려 고분벽화 관련 사업을 거래말 큰사전, 만월대 발굴 등의 사례처럼 제도권에서 관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민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중장기 사업 계획을 세워 체계적인 사업 수행 및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남북

협력기금의 이용 등을 검토하고 문화재청, 동북아역사재단 등 유관기관에 고구려 고분벽화 사업 전담 업무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발견된 120여기의 고구려 고분벽화 중 북한 경내에서 발견된 벽화의 분류와 보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고구려 고분벽화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구려 고분벽화의 연구 기반 조성 및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인문학이 퇴조하는 현실에서 고구려 고분벽화의 연구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역사, 고고, 미술사 등의 학문 분야뿐 아니라 보존과학, 사진, 컴퓨터그래픽 등의 인접 학문과의 융복합을 지향해야 한다.

남북간 고구려 고분벽화 관련 상이한 해석 및 역사 인식 차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고분벽화의 기원, 편년, 묘주 출신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남북 학자들이 공동 연구하고 정기적으로 학술적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보존처리 및 보호를 위해서 벽화의 제작 기법 파악, 응급처리, 고분의 구조진단, 보존 환경개선 등에 대한 전문 연구와 관련 장비를 도입하고 공동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고분벽화는 발굴과 동시에 훼손이 시작된다. 따라서 보존이 유한하고 점차 망실되는 고분벽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구려 고분벽화의 현상 기록 및 종합 DB 구축이 절실하다. 고해상도 디지털 사진 촬영, 안료의 색도와 성분에 대한 정밀 분석, 적외선과 자외선 촬영, 3D 스캔 작업 등을 통해 벽화의 현상을 파악하여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고구려 고분벽화의 종합자료집을 발간하고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모사도를 제작함으로써 현 상태를 정확하고 꼼꼼하게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고구려벽화의 형상 복원, 벽화 전체에 대한 디지털 현상모사도 및 복원모사도를 제작함으로써 혹시 있을 망실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벽화의 제작 기법을 적용한 실벽모사도 제작하여 전시하고 벽화고분의 실물 크기 모형을 설치함으로써 현지에 가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고분벽화 항목 연구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디지털 고구려벽화 박물관 구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 3D 디지털 복원, Web용 콘텐츠 개발, VR용 콘텐츠 개발을 통해 가상 체험 기회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남북 당국은 민족 공동의 재부이자 세계문화유산으로서 고구려 고분벽화를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공감하고 공동 연구를 위한 기구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중립적이고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도 영향 받지 않는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

한 ‘남북공동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보존 센터(가칭)’ 설립이 요청된다.

*주제어(key words)_고구려(高句麗, Koguryo), 고분벽화(古墳壁畫, Ancient Tomb Murals), 남북(南北, North and South), 교류(交流, Exchange), 협력(協力, Cooperation), 역사(歷史, History), 문화(文化, Culture)

■ 투고일 2019년 8월 30일 | 심사개시일 2019년 9월 9일 | 심사완료일 2019년 10월 14일 ■

참고문헌

1. 한국어 문헌

사단법인 海外韓民族研究所, 『韓民族共榮體』 제2호, 1994.

고구려연구회 편, 『高句麗 古墳壁畫』 高句麗研究』 第4輯, 학연문화사, 1997.

조한범, 「남북 사회문화 교류 협력의 평가와 발전방향」,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통일연구원, 1999.

특별기획전 고구려! 추진위원회, 『특별기획전 고구려! 평양에서 온 무덤벽화와 유물』, 우진인쇄, 2002.

민족화해협력법국민협의회, 『2004 남북공동기획 고구려문화전』 도록, 동광문화인쇄사, 2004.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고구려 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 남북공동 사진전시회 및 학술토론회』 팜플렛, 2004.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남측위원회·남북학술교류협회 편, 『고구려 벽화고분의 세계: 고구려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기념 남북공동전시』, 2004.

고구려연구재단·조선력사학회·러시아극동국립기술대학교 편, 『남북러 국제학술회의고조선 고구려발해발표 논문집』, 고구려연구재단, 2005.

고구려연구재단 편, 『평양일대 고구려유적』 南北共同遺蹟調查報告書, 고구려연구재단, 2005.

남북역사학자협의회·국립문화재연구소, 『남북공동 고구려 벽화고분 보존 실태 조사 보고서』 제1권(조사보고)·제2권(도판), 남북역사학자협의회·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백학순 외, 『남북 사회문화교류 중장기 로드맵 설정 및 추진 전략 연구』, 통일부·민족화해협력법국민협의회, 2007.

남북역사학자협의회·국립문화재연구소, 『남북공동 고구려 벽화고분 보존연구 보고서』, 남북역사학자협의회·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양현모·이준호,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 구축』, 통일연구원, 2008.

동북아역사재단 편, 『동북공정과 고구려』 내부자료, 동북아역사재단, 2010.

동북아역사재단, 『남·북·중·러·일 국제학술회의: 高句麗·渤海史 研究의 새로운 地평』 자료집, 2011.

동북아역사재단 편, 『옥도리 고구려 벽화무덤』, 동북아역사재단, 2011.

통일부·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통일시대를 위한 민족문화자산 남북협력』 민족문화자산 남북공동보존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2.

정태현 외, 『민족공동문화자산 교류협력 추진방안』,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남북역사학자협의회, 2013.

박영정 외,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3.

정호섭, 「민족공동 문화유산관련 남북 교류협력위 역사와 평가」, 『한성사학』 28, 201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대비 남북방송교류협력 교류협력센터 추진방안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15.

전영선·신준영, 『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남북 문화유산협력』,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김정배, 『한국과 중국의 북방사 인식』, 세창출판사, 2018.

국립문화재연구소, 『남북문화유산 교류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8.

2. 데이터베이스

“[KBS 스페셜] 고구려의 부활(2편) – 고구려 벽화, 세계와 만나다.(2004.07.11.)”, 《KBS 통일방송연구》
(<http://office.kbs.co.kr/tongil/archives/22173>)

“남북 역사학자들 금강산서 고구려유적 학술회의”, 연합뉴스 2005.1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1162732>)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2007.11.16”, 《남북정상선언 이행 종합기획단》 통일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1162732>)

“〈고구려 고분벽화〉 특별전시회 개막”, 《보도자료》 한성백제박물관 2016.12.27.

(http://baekjemuseum.seoul.go.kr/board/index.jsp?boardid=SBM0504000000&mmode=content&mpid=SBM0504000000&skin=notice&pid=12672&strsearch=&d_s_que=&cpage=4)

“월간 남북교류동향 2017년 7월”, 《통일북스》 통일부

(https://www.unikorea.go.kr/books/monthly/interchange/?boardId=bbs_0000000000000044&mode=view&cntId=46539&category=&pageIdx=)

“北TV, ‘고구려 고분벽화 사진전’ 소개”, 연합뉴스 2017.10.1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01&aid=0001921134>)

“문화재청, 남북문화재 교류 및 협력사업 본격 시동-남북문화재교류사업단 신설 및 8일 남북 문화유산 정책포럼 출범-”, 《보도자료》 문화재청 2019.3.7.

(http://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newsItemId=155701268§ionId=b_sec_1&pageIndex=45&pageUnit=10&strWhere=&strValue=&sdate=&edate=&category=&mn=NS_01_02)

국문초록

역사문화 관련 남북학술교류협력이 가능해 진 것은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부터이다. 그리고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의 교류협력분야에 ‘문화’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2007년 ‘10·4선언’에서 ‘역사’를 독립된 분야로 분류함으로써 고구려 역사문화 관련 남북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남북학술교류는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을 기점으로 이전의 해외에서 간접적으로 접촉한 단계와 이후 화해협력 무드를 타고 남북이 주도적으로 직접 교류하는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 관련하여 1990년대까지 4건 정도의 간접 접촉이 성사된 반면 2000년 이후에는 학술회의가 7건, 전시회 7건, 발굴조사 및 보호 사업 4건, 방송 교류 2건 등 총 20건 정도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고구려 고분벽화가 학술 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고구려를 통해 공동의 역사 인식을 갖게 하는 중요한 소재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고구려 고분벽화는 점차 망실되어 가고 연구는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다. 남북 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의 재정적 지원은 물론 정치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인 연구와 보호 대책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 ‘남북공동 고구려 고분벽화 보존연구 센터(가칭)’같은 기관의 설립이 절실하다. 한시바빠 고구려 고분벽화를 민족의 자랑스러운 공동 유산으로 길이 보전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The Implications of Koguryo Tomb Murals for South-North Korea Exchange and Cooperation

Ko, Kwang-eui*

It was not until the proclamation of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August, 1990) that acade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on history and culture became conceivabl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due course, the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June 15, 2000), on which the cultural field is specified among those of cooperation and exchanges, and the 2007 South-North Summit Declaration (October 4, 2007), which identifies history as a distinct area for further cooperation and exchanges, have made it possible to set up a joint project on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ancient kingdom Koguryo.

The June 15th Declaration marked a watershed in the history of the academic exchange between two Korea: the previous method of dialogue—mediated contacts in a third country—gave way to a new stage in which Koreans began to take the initiative in direct interchanges in line with a growing mood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In the 1990s no more than four contacts—and even not unmediated ones at that— took place, the frequency of which has increased up to twenty times since the year 2000 (seven academic conferences, seven exhibitions, four projects of excavation and preservation, and two broadcast cooperation). These developments include studies on wall paintings in the ancient tombs from the Koguryo Kingdom, leading to awareness not only that the murals hold a significant value as academic materials but also that Korean people could share a common historical foothold

through the past.

Unfortunately, however, the Koguryo murals have perished gradually, and studies shrunk rapidly. The late conditions request an immediate recognition and actions for both governmental authorities. It is deeply necessary to establish an independent institution (tentatively, a South-North Joint Preservation and Research Center for Koguryo Tomb Murals) that will secure consistent researches and preventive measures regardless of the ever-changing political climate. Looking into how to conserve the murals as shared cultural heritages and to make detailed plans is now of great urgency.

* Senior Research Fellow,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